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 2015 예산안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중 -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2014 정기국회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교총 간담회(14.11.25)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면담(14.11.18)

❶ 연금액은 줄어들이지만 퇴직수당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 평균 공무원 1인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179만원에서 162만원으로 감소하나, 퇴직수당은 4,733만원에서 6,553만원으로 증가합니다

❷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연금액 차이가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기준소득 상한을 인하하여 5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연금액 차이가 현재보다 51% 감소하게 됩니다 ('06년 임용공무원 기준, 연금액 차이 : 87만원 ⇨ 4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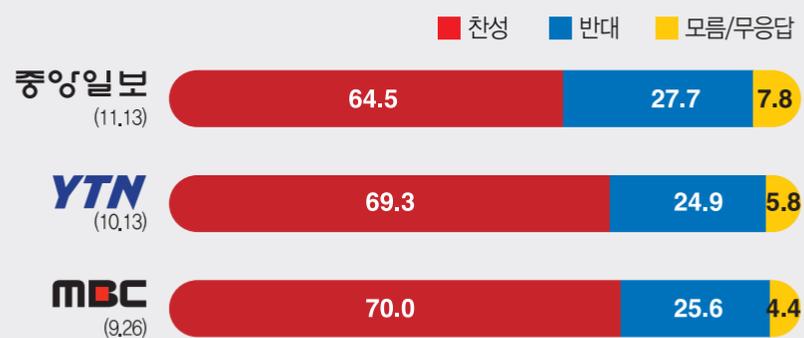
새정치민주연합은 눈치만 보며 어부지리하려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연금개혁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시간을 끌어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2008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개혁안과 현재 새누리당 개혁안의 기조는 유사합니다

- ▶ 퇴직연금 지급률 인하
- ▶ 신규임용공무원 국민연금가입
- ▶ 공무원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
- ▶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찬성!



시기를 놓치면 국민부담만 커집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정책홍보물

새누리당